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국내 양돈장에서 전문양돈인이 줄어드는가?

1. 누가 찬물을 끼얹었나?

누굴 탓하겠습니까? 국내 양돈장에 사람이 귀하게 된 것은 우리 양돈인들만의 잘못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전체가 한탕으로 쉽게 사는 쪽으로 변하고 있고, 더구나 양돈장처럼 냄새 나고 파리 끓고 외진 곳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젊은이고 늙은이로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구분 없이 없어져 가는 것을...



박 중 회 국장
한국양돈연수원

2. 전문양돈인만 줄어드는가?

양돈인이라면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최말단 노무자까지 통털어서 일컫는 말이겠지요? 그 중에서 양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전문양돈인이라고 한다면, 전문양돈인이 아닌 양돈인도 있나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비전문양돈인이라고 하나요? 한탕을 위하여 딸이농장을 사서 잠시 기르는 경영자나 다른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잠시 양돈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무자를 비전문양돈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쨌건, 양돈장에 일할 사람이 다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양돈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바쳐 가꾸어온 양돈장을 자식들이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으니 후계자가 없는 문제가 있고, 불법 체류 외국인마저도 양돈장을 기피하니 노무자도 절대 부족하고, 돼지의 생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현장관리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총체적인 사람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구요.

3. 후계자 문제의 해결 방안

평생을 가꾸어 놓은 양돈장에는 최소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의 양돈용 건물과 기계·설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꾸지 않아도 그렇지요. 그 시설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고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 하드웨어(Hardware)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자리잡은 일만 해도 수억의 가치가 있지요. 주민 반대? 하도 심해서 웬만한 곳에 새로 양돈장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뿌려야 하니 그걸 돈으로 따져야지요. 또, 양돈장을 하면서 쌓아온 보이지 않는 노하우도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후계자가 없어서 버리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손실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입니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후계자를 육성해야 하는데 서양 어떤 농장들은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아서 덜 깨게

하고 휘황찬란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여 농장을 물려주기도 하던데, 한국에서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활용하거나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여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안 될 때는 농장장이나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임시방편으로 그치고 맙니다.

후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양돈장을 법인체로 만들어 이웃의 양돈장과 공동경영하거나, 종업원들을 농장 주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관리자도 자본에 참여시켜 이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본참여로 현장관리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지요.

또, 현장관리자에게 자본참여의 기회를 주면 경영방향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추진력이 약해지는 부작용도 뒤

따르게 됩니다만,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4. 현장 관리자 문제

현장 관리자는 자본참여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안정될 수 있습니다.

1) 양돈장 환경개선

양돈장이라면 냄새나고 파리 끓는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만한 사람이 근무하게 됩니다. 시설과 운영비용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동네 한 가운데 양돈장이 있어도 냄새나 파리로는 농장을 찾을



▲ 후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양돈장을 법인체로 만들어 이웃의 양돈장과 공동경영하거나, 종업원들을 농장 주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왕창 쏟아져 들어오지 않으면, 양돈장까지는 넉넉한 숫자가 오지 않을 것이고, 기피직업으로 잘 안오는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지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저개발국가 현지와 연계하여 연수생을 받아야 합니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후생복지 개선

양돈장 관리인도 빨간 벽돌집에서 에어컨 켜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유능한 사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회의와 회식·공동 취미활동(탁구·족구·볼링 등)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3) 인정하는 경영

현장 관리자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는 경영을 해야만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격려해 주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써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지요.

5.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단순 노동자

정부에서 농업분야에서 5,000명의 산업연수생을 투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절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어서, 단순노동자 부족문제는 줄어들겠지만, 그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왕창 쏟아져 들어오지 않으면, 양돈장까지는 넉넉한 숫자가 오지 않을 것이고, 기피직업으로 잘 안오는 일이 해결될 것 같

지 않고, 지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저개발국가 현지와 연계하여 연수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저임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연수 후 돌아가면 일할 수 있는 양돈관계 인프라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면서 연수생을 데려와야 그들이 몇 만원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혹 때려다 혹 붙이는 일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환경규제와 각종 불편에 지친 양돈농가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돈**